
서 평

역사 속에서 살펴본 호락논쟁

[서평] 이경구(2018), 『조선, 철학의 왕국 — 호락논쟁 이야기』,
푸른역사, 384쪽.

허 태 용*

1. 들어가며

역사 연구자들에게 과거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현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해왔던 한 사람의 역사 연구자로서, 이경구 교수의 저서 『조선, 철학의 왕국』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시각을 제시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비슷한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평자의 이런 생각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리라. 한국사 분야 중에서 조선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연구의 주제로 삼는 경우, 특히 그것이 이른바 ‘실학’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 성리학과 관련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난관들을 만나게 된다. 근대적 발전을 저애하여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으로서 성리학을 부질없는 공리공담으로 ‘심판’하고자 하는 오래된 시각도 여전히 일부 만나게 된다.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도대체 조선시대의 성리학 속에서 무슨 유의미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시각을 견지한 많은 연구자들의 경우 성리학의 이항대립적 존재로서 ‘실학’을 설정하고 그 존재를 사실화하면서 조선시대의 사상사를 ‘실학’ 중심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학’이 갖는 현재의 가치를 발굴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성리학으로 채우지 못하는 역사적인 공허함을 대신 채우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성리학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는 온전히 철학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런 시도들이 갖는 연구사적 의의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학술적 답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평자의 짧은 소견에서 볼 때, 성리학이 진실로 공리공담이었다면,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성리학을 비난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왜 공리공담에 그토록 열중하였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필요한 자세이다. 또한 성리학의 이항대립적 존재로서 ‘실학’을 설정하였다면 ‘실학’의 성격을 대비적으로 구명하기 위해서라도 성리학의 다양한 측면과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학문적 시도는 부족하였고 그 결과 성리학의 이항대립적 존재라는 ‘실학’의 개념을 한 세기 가깝도록 여전히 찾고 있는 모습만 남게 되었다.¹⁾ 조선시대에서 ‘실학’을 이야기하려면 조선시대에서 성리학이 무엇인가를 먼저 질문하고 그것이 진지한 연구의 대상임을 인정했어야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²⁾

-
- 1) 한영우 외(2007),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16년 한국실학학회 공동 학술대회 ‘실학을 다시 생각한다’.
 - 2) 일찍이 한우근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그것이 어떠한 전통적인 사상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의 새로운 경향을 창조해낸 것이라면 그 깨뜨려진 구각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명백히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한우근(1985), 「다산사상의 전개」, 『정다산연구의 현황』, 민음사, p. 16).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연구자들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직접 대면하고 연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계가 봉착한 난관을 돌파하는 길은 성리학을 직접 마주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뿐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역사적 성격과 의의를 찾기 위한 역사가들의 새로운 시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볼 때, 조선시대 성리학 중에서도 가장 사변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락논쟁을 정면에서 다룬 이경구 교수의 업적은 대단히 반갑고 고맙다. 평자는 서평의 형식을 빌려 나름 본서를 읽으면서 갖게 된 생각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본서의 구성과 내용

본서는 序章을 포함하여 모두 8장으로 구성되었지만, 일반적인 서적과는 조금 달리 저자의 문제의식이 비교적 길게 정리된 서론과 결론의 존재가 특히 주목되기 때문에 본서를 읽는 독자들은 서론과 결론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깊이 음미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힘들게 구했음 것이 분명한 관련 도판들이 본서의 관련 부분에 적절하게 소개되고 있는 점은 본서의 가치를 더해줄 뿐 아니라 독자로서 하여금 본서가 다루고 있는 조선후기의 역사적 분위기를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먼저 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의와 과제를 평자의 시각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서장 ‘호락논쟁의 이모저모’에서는 제목처럼 호락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과 개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시대의 논쟁이었던 사단칠정논쟁과 예송논쟁이 비록 철학 논쟁이었지만 정치사회적 배경과 연동되는 과정에서 봉당의 정치적 대립이라는 현실과 결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호락논쟁은 숙종대 후반 이후 정계와 학계의 주

도권을 갖게 된 노론 안에서의 분열과 논쟁이었다는 점에서 봉당정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논쟁과도 같다고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즉 명칭교체 이후 송시열이 견지하였던 문제의식인 조선의 ‘중화적 정체성’ 보존이라는 과제를 그의 후예들이 이어받는 과정에서 지역과 사승 관계의 차이에 따라서 충청 지역의 제자들과 서울 지역의 제자들 사이에 호락의 분기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특히 18세기 이후 조성된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새로운 국제 정세가 변화된 조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호락논쟁은 변화된 상황에 대한 원칙론자와 수정론자 사이의 인식과 대응의 차이였다고 설명하였다.³⁾ 책 전체를 관통하는 저자의 시각을 압축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1장에서는 호락논쟁이 처음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였다. 우선 송시열이 기사환국의 과정에서 사사된 후 그가 남긴 유훈이 수제자였던 권상하에게 남겨진 맥락, 그리고 제천에 정착한 권상하의 문하에서 배출된 뛰어난 제자들인 강문팔학사 중 한원진과 이간 사이에서 최초의 논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未發 상태에서 기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에 관한 한원진과 이간 사이의 이견은 1709년 홍주 한산사에서 일주일간의 학술토론을 거치면서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나아가서 동문인 팔학사 사이의 의견 역시 갈리게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뒤이어서 저자는 송시열의 또 다른 학문적, 정치적 계승자들인 서울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발생하였음을 소개하였다. 그 중심에는 안동 김문을 대표하는 김창협, 김창흡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다음 세대인 박필주, 어유봉, 이현익 사이에서 이간과 한원진이 논쟁했던 것과 유사한 학문적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서울에서의 주류 입장과 호서에서의 주류 입장이

3) 호락논쟁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에 한 명인 이애희 교수도 거시적으로 볼 때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호락논쟁을 바라보는 듯하다(이애희(2004), 『조선후기 인성·물성 논쟁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 30-31).

상반되었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2장에서는 호락논쟁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먼 시원을 찾아 올라가는 것으로 서술을 시작했다. 즉 유학의 전통에서 성리학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서 그런 맥락으로 인해 성리학이 지니게 된 독특한 성격을 설명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인류의 대표적인 종교와 사상들은 역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나가기 때문에 역사의 전개와 무관할 수 없게 마련인데, 성리학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나라 이후 중국 지식인들은 형이상의 이치는 불교와 도교를 통해서 추구하였고, 유학은 형이하의 위치에 국한되었기에 유학의 일대 반성과 혁신이 추구되었고, 그 결과가 송나라 시기 성리학의 탄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리학은 남송의 주희에게서 가장 잘 드러나듯이 우주와 인간과 만물의 생성과 같은 형이상의 문제를 理氣의 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였고, 그 바탕 위에서 우주의 원리를 깨달은 인간인 군자를 통해서 유학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성리학은 철학적 사변론에서부터 사회정책까지 방대하게 걸쳐 있었고 논쟁도 끊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모든 논쟁의 출발은 理氣 개념의 이해와 인간과의 관계 설정이었기 때문에 16세기 조선에서는 理氣와 인간의 心性의 관계를 둘러싼 四端七情 논쟁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호락논쟁은 바로 그것에 뒤이어 四端과 七情이 통합되어 있는心に 집중하게 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감각이 발동하기 전의 마음, 즉 未發과 감각이 일어난 후의 마음인 已發에 대한 고찰은 마음의 본질을 깨달아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깊이 고찰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문제는 미발과 이발을 이기와 심성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간단치 않았으며 미발 시에는 정말 지각이 존재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라는 데 있었다고 한다. 성리학의 초창기부터 논의되었던 이런 문제들이 호락논쟁에서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호론의 경우

는 이기의 일원성을 강조하면서 미발의 상태에서도 기질지성이 있다고 보았던 반면, 낙론의 경우는 대개 본연지성의 주도권을 인정하였다고 정리하였다.

한편 미발에 대한 고찰 이후에는 인간과 외부 사물의 관계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기질지성을 강조한 호론은 인성과 물성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오랑캐에 대한 분별을 중시하였고, 본연지성을 강조한 낙론은 천리 자체로는 인성과 물성이 동일하다고 보았음을 소개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는, 호론은 누구나 본성은 같지만 기질에 좌우되기 때문에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을 수 없었다고 보았다면, 낙론은 정반대로 기질은 부차적이었고 본질은 같게 보았음을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숙종 후반 이후부터 영조 대까지의 노·소론 간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호론계와 낙론계의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고초를 겪게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하였고, 그 후 영조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탕평을 추구했을 때 한원진을 비롯한 호론은 대부분 냉담하게 반응하며 출사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어유봉과 박필주 등과 같은 낙론계 인물들은 노론의 의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출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을 대비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영조 대 중반 이후 노론의 정치적 우위가 확인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호락논쟁이 새로운 세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본격적인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여기서 저자는 낙론의 李縉를 주목하였다.

4장에서는 호론의 한원진과 낙론의 김원행을 중심으로 두 인물이 추구하였던 학문적인 지향을 정리하였다. ‘正學’의 수호자를 자처하였던 한원진이 『주자언동이고』를 완성함으로써 송시열 이래의 숙원이었던 주희 학설의 오류 없는 정리를 이루어낸 모습과 안동 김문의 후예인 김원행이 석실서원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길러낸 모습을 대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한원진이 낙론을 의식하며 人獸無分, 儒釋無

分, 華夷無分의 ‘삼무분설’을 주장한 과정과 여기에 대해 낙론이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유학의 근본정신을 불러내 대응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보편사상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가치와 한계를 현재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5장에서는 외부적으로 청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 내부적으로 사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계층들의 존재가 성리학의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의 시점에서 논쟁의 3세대 학자들은 변화에 대한 통찰과 개선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화양서원 묘정비 글귀 문제나 송시열의 영정 보관 문제와 같은 사소하고 감정적인 문제들에 집착함으로써, 또한 영조 후반의 외척 중심의 정치적 구조가 호론 및 낙론과 연루되면서 상호 간에 갈등만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급기야 이런 갈등이 정조 즉위 이후 정국을 뒤흔든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과 결부되면서 호론과 낙론 모두 여러 갈래로 분화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특히 정조 후반기를 대립한 정파인 시·벽파로 헤쳐 모이게 된 정황을 서술하였다.

6장에서는 호락논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일부 지식인들의 시각과 성리논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던 영조와 정조의 자세를 소개하는 등 호락논쟁이 정작 중요한 근본 의미를 놓쳐버렸다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며 건강한 소통을 촉구하던 학자들의 존재를 특기하였다. 윤기, 정약용, 정동유 등이 언급된 것은 이 과정이었는데, 저자에 따르면 이런 반성적인 성찰이 실용과 실천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풍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른바 ‘실학’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정점에 홍대용을 위치시키면서 호락논쟁의 세례를 받으며 자란 낙론가의 후예인 그가 연행의 경험과 학문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바탕으로, 논쟁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인, 차별이 사라진 ‘범애의 세계’를 꿈꾸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서에서 홍대용의 위상은 독보적

이라 할 만하다.⁴⁾

7장에서는 19세기 이후 호락논쟁의 추이에 대한 회고적인 느낌의 성찰을 담고 있다. 정조 사후 정치적, 학문적인 ‘억압과 반동’의 상황 속에서 천주교와 연루된 남인들과 낙론계의 인물들이 직면하게 된 어려움을 담담하게 서술하는 한편으로, 1806년 벽파의 몰락 이후로는 반대로 호론계의 정치적 몰락을 정리하면서 반복적인 공포와 대립 속에서 世道는 사라지고 勢道만 남은 상황을 우울하게 서술하였다. 공론을 표방한 격렬한 시비논쟁은 사라졌지만, 그와 함께 최소한의 원칙과 도리도 사라지면서 낙론도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서양이라는 새로운 외부적 위협이 등장하였을 때 호론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 낙론은 계속 분화하면서 동도시기에 입각한 개화를 주장하거나 최한기에서 보이듯 서학까지 아우르는 새 문명을 구상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호락논쟁의 마지막 모습과 유산을 묘사하였다.

3. 본서의 의의와 과제

본서가 지닌 의의 첫 번째는 철저하게 역사가의 시선에서 호락논쟁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락논쟁은 논쟁 자체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철학 논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변적인 철학 논쟁조차도 역사적인 조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철학 논쟁들은 동시에 역사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락논쟁은 철학적 시각과 역사적 시각이 동일한 비중으로 투사될 경우 보다 정확한 학술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호락논쟁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철학연구자

4) 저자는 홍대용의 사유가 하늘, 사람, 사물을 동등하게 본 동학의 인식과 그다지 멀지 않다고까지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본서, p. 341).

들의 철학적 시각에 의해 진행되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자의 작업은 호락논쟁에 관한 현시점까지 역사학계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저작의 기본 시각으로 말미암아 독자들은 호락논쟁의 주요 논점 뿐만 아니라 호락논쟁이 전개되었던 18, 19세기 조선 역사의 구체적인 현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특히 조선후기 정치사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붕당 간의 정치적 대립과 호락논쟁이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서술은 대단히 세밀하고도 사실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기만 하였던 호락논쟁이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파악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축적된 공부의 결과임이 분명한 수많은 관련 자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어서 이 주제에 관한 자신의 확고한 이해나 주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지불식간에 저자의 주장에 빠져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기 십상이다.

본서가 지닌 두 번째 의의는 문학적인 글쓰기의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려면 서사화의 과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글쓰기에서도 문학의 형식을 빌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플롯을 취하는가, 어떤 문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의 수준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자는 호락논쟁을 둘러싼 조선후기의 역사상을 하나의 뛰어난 문학적 서사로 정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본서를 집필할 때 저자는 호락논쟁과 관련된 조선후기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시간 순에 따른 스토리 형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연관관계에 따른 사건 배열을 위해 회상, 호출, 삽입 등의 기법을 사용하면서 복잡한 서사의 구조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독자들이 본서를 읽고 나서 마치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709년 이간이 한원진과의 토론을 위해서 한산사로 가는 길을 묘사한 부

분은 특히나 아름답다.

세 번째 특징은 서론과 결론, 그리고 본문의 여러 부분에서 저자가 역사가로서 현실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호락논쟁을 둘러싼 과거의 시점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18, 19세기 조선의 철학적 논의가 갖는 현재적 의미를 찾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역사가로서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저자가 현실을 이루는 한 원인이었을 과거의 특정한 철학논쟁에 대화를 거는 것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인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국정교과서 등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고, 기독교와 불교에서 타자를 바라보았던 역사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호락논쟁을 다룬 본서에서 16세기 유럽의 바야돌리드 논쟁⁵⁾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었는데 특정 주제에 몰두하는 대부분의 학술 연구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이런 저자의 집필 자세는 저자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는 동시에,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연구하는 역사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극과 시사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평자가 서평을 써야 한다는 책임을 맡지 않았다면 좀 더 오랫동안 본서의 매력에 빠져 있었겠지만, 그다지 달갑지 않은 그 책임은 평자에게 본서의 남은 과제를 찾도록 강요하고 말았다. 본서의 가치나 의의를 충분히 음미하고 파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남은 과제를

5) 바야돌리드 논쟁은 1550년과 1551년 두 차례 스페인의 도시 바야돌리드에서 있었던 신학 논쟁으로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신의 형상을 지닌 동등한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찬반으로 갈려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종교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던 스페인의 귀족들의 입장과 그들을 이용하여 스페인의 영향력과 국가재정을 확대하면서도 그들의 지나친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하고, 동시에 원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평화적 복음화, 식민화를 추진하던 교회 안의 입장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던 ‘신앙의 수호자’ 스페인 국왕의 현실적인 처지 등이 역사적 배경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다고 보인다. 바야돌리드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영효(2007),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스페인의 초기 인식과 태도』, 『역사학연구』 31.

찾는 과정은 더욱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조심스럽게 몇 가지만 언급해보자.

첫째, 본서는 호락논쟁을 주제로 삼아서 서술되었지만 호락논쟁 자체에 대한 서술보다는 호락논쟁 주변의 이야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자 스스로가 결론에서 호락논쟁의 발생 과정이나 이면을 보여주는 것 정도에 불과했다고 고백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철학 연구서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의 형식으로 집필하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본서의 후반부 서술은 조선후기 정치사 서술 속에 호락논쟁의 요소가 억지로 삽입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영조 대 이후 순조 대까지 숨가쁘게 이동하던 정치사 전개는 일차적으로는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호락의 논쟁 구도와 정치사의 대립 구도는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호락의 대립 구도를 확장시켜서 정치사의 전개를 서술하는 방식은 자칫하면 호락의 학문적 대립이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파와 정파가 긴밀히 연관되었던 조선후기의 상황 속에서 볼 때 둘 사이에는 분명 깊은 상관성은 있었겠지만 그것은 늘 호락논쟁이 因이 되고 정치적 대립이 果가 되는 방식의 관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호론계인 윤행임이 정치적으로는 시파로 활동한 반면 낙론계인 김종후가 벽파로 활동하였던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19세기 이후 위정척사 운동이나 동도서기에 입각한 개화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계보적으로는 호론, 낙론과 관련되었지만 호락논쟁의 연장선 위에서보다는 19세기라는 또 다른 현실 국면에 대응하는 차원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둘째, 6장에서 보이듯 저자는 호락논쟁을 서술하는 맥락 위에서 자연스럽게 북학파계열 ‘실학자’인 홍대용을, 평자의 인상대로라면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시켰는데, 이런 방식은 성리학을 연구 주제로 삼지 못하

고, 그 대체물로서 ‘실학’의 발굴에 집중하였던 선학들의 연구 경향을 상기시키는 듯해서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 낙론계 인물인 홍대용이 호락논쟁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겠지만 문제는 언급되었다는 점보다는 언급되는 방식이나 시각에 있을 것이다. 저자의 시각에서 볼 때 홍대용은 낙론의 문제의식과 연행의 경험, 그리고 학문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호락논쟁의 중요한 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긴 인물이자 호락논쟁을 뛰어넘은 인물로서 그려진다. 이것은 홍대용에 관한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연구 시각이기도 하지만 홍대용 역시 성리학의 화이론, 이기심성론에 기반을 두고 그의 사상을 전개시켜나간 것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⁶⁾ 「의산문답」에만 지나치게 의지할 경우 홍대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홍대용을 주제로 한 토론장에서 홍대용의 기획이나 비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연구자들이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⁷⁾ 이런 난감한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홍대용은 당분간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문제적 인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좀 더 적절할 듯하다.

셋째, 조선후기 호락논쟁의 역사적 의미, 혹은 현재적 의미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저자는 보편주의와 분별주의, 그리고 타자에 대한 성찰이라는 핵심어를 제시하였다. 인물성동이와 성범심동이의 문제가 호락논쟁의 주제였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긍되는 면이 있으며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고민의 시사점을 주기에 아주 적절하다. 그런데 현재적 의미를 찾는 문제가 아닌 호락논쟁 자체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인물성동론과 성범심동론을 견지하는 것이 중심과 주변, 위계와 신분으로 이루어

6)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山内弘一(1996), 「洪大容の華夷論について」, 『朝鮮學報』 159; 김태년(2009), 「한원진과 홍대용의 정확이단론」, 『정신문화연구』 116.

7)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종합토론 — 담헌 홍대용을 보는 시각들 —」, 『국문학연구』 36, 2017, p. 330. 임종태 교수의 발언 참조.

진 세계의 차별성을 파괴하는 것과 바로 이어지는 문제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다. 기존 연구의 언급에서처럼 이런 시각은 한원진이 자신의 논점을 강화해가면서 화이론 같은 정치적 문제의식을 의도적으로 개입시킨 것이지 낙론 측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수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⁸⁾ 낙론을 가리켜 無分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한 호론의 입장에서 볼 때 物은 곧 금수와 동일하게 인지되는 경향이 강하였다면, 낙론에게 物은 外物, 非我的 의미인 객관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기에 그들은 인물성동론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사람의 성과 짐승의 성이 그대로 같다는 의미로 굳이 인식할 이유는 없었다는 설명도 제시되어있다.⁹⁾

저자가 낙론 학자들 대부분은 당시의 차별적 질서의 한 고리에 충실했을 따름이라고 고백한 것은 아마 이런 점을 충분히 의식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 지점에서 그들의 의지와 실천의 부족을 지적하거나 제한성을 두며 그 가능성에 주목하는 방식을 택했다.¹⁰⁾ 하지만 퇴계학파의 인물성동이론에서는¹¹⁾ 새로운 대청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1712년 사신으로 온 청나라 관리의 청렴함을 칭찬하였던 中人 高時彦, 淸을 大國으로 칭하면서 능력 위주의 관리 등용을 칭찬한 李灃, 그리고 청나라를 이적 중의 중화로 평가한 丁範祖 등은 모두 낙론과는 무

8) 문석윤(2006), 『호락논쟁 형성과 전개』, 동과서, p. 29.

9) 조성산(2007),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pp. 272-273.

10) 이런 방식의 접근은 유봉학 교수의 입장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물론 호락론 등 심성론에 대한 철학적 여러 입장과 새로운 학문적 입장과의 연관성 문제는 추후 더 정밀히 검토되어야 하나, 중요한 점은 자기 현실에 대한 사실적 인식과 관심, 그리고 그 해결의 의지였다고 생각한다. 인물성동·이론을 피력했던 당시의 수많은 학자들 가운데 새로운 학문론에까지 나아갔던 이는 실상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다(유봉학(1995),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p. 101).

11) 퇴계학파의 인물성동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문석윤(2005), 「조선후기의 주요 논쟁과 쟁점」, 『한국유학사상대계 III: 철학사상편(하)』, 한국국학진흥원, pp. 363-369.

관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낙론의 인물성동론·성범심동론 역시 세계의 차별성을 파괴하는 실천과는 애초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말의 유학자인 李喆榮(1867~1919)이 인물성동이의 문제보다 미발에서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던 것을¹²⁾ 상기해보는다면, 저자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호락논쟁을 이해할 때 현실의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성동이론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오늘날의 ‘필요’를 강하게 투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¹³⁾

4. 글을 맺으며

저자는 본서를 포함해서 벌써 단독 저술만 네 권을 냈다. 첫 번째 저서인 『조선후기 안동 김문 연구』(일지사, 2007)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결과물이며, 두 번째 저서인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푸른역사, 2009)는 인물별 서술을 큰 시각에서 종합한 것이다. 또한 세 번째 저서인 『조선후기 사상사의 미래를 위하여』(푸른역사, 2013)는 기존의 간행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저서인 본서는 저자의 일관된 문제의식이 책을 관통하면서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할 것 같기도 하다. 게다가 본서는 2015년 신문 지상을 통해 일반 독자와 한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12) 이상익(1986), 「호락논쟁의 근본문제 연구」,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석사학위논문, pp. 7-8.

13) 사실 저자 역시 이런 점에 대한 비슷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결국 철학의 이론이 현실이라는 프리즘을 투과할 때는 여러 갈래의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철학이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까, 현실의 인간들이 철학의 명제를 활용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자의 현실 곧 해석에 관여하는 현실이 문제인 듯하다.”(본서, p. 113).

의 반응과 상호 소통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학계의 성과물이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정하게 확인한 소중한 결과물인 셈이다. 우리는 이제 본서를 통해서 호락논쟁의 배경과 의의, 그것을 둘러싼 조선 후기 역사의 전개 과정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학문적 글쓰기를 해본 사람들은 현실에 기반한 문제의식을 과거의 사료를 이용해서 학술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런 학술적 성과물을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중적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서 그간 자신의 공부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을 학계의 공간에서만 아니라 일반인들과도 소통할 수 있음을 일정하게 증명해내었다. 집필의 과정은 아마 대단히 어려운 시간들의 나날이었으리라. 평자는 저자에 대한 이런 부러운 마음 자세를 서평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낸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본서의 의의와 과제를 제시해야 하는 서평을 작성하는 일은 애초에 별다른 의미 있는 연구도 여러 해 동안 내놓지 못하고 있는 평자 같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도 이미 다 공감하고 있을 불필요한 말들을 과제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것은 서평이라는 형식이 요구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평자 스스로에게 과제를 던진 것이기도 했다. 그런 과제들을 수행해야 할 책임은 저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의 비슷한 주제를 전공하고 있는 평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논 저】

-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종합토론 — 담헌 홍대용을 보는 시각들 —」, 『국문학연구』 36, 2017.
- 김태년(2009), 「한원진과 홍대용의 정학이단론」, 『정신문화연구』 116.
- 문석윤(2005), 「조선후기의 주요 논쟁과 쟁점」, 『한국유학사상대계 III: 철학사상편(하)』, 한국국학진흥원.
- _____(2006), 『호락논쟁 형성과 전개』, 동과서, 2006.
- 유봉학(1995),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 이상익(1986), 「호락논쟁의 근본문제 연구」,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애희(2004), 『조선후기 인성·물성 논쟁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영효(2007),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스페인의 초기 인식과 태도」, 『역사학연구』 31.
- 조성산(2007),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 한우근(1985), 「다산사상의 전개」, 『정다산연구의 현황』, 민음사.
- 山内弘一(1996), 「洪大容の華夷論について」, 『朝鮮學報』 159.